두드림 작은미술관
소록 작은미술관 Art Laundry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우리미술관
두계 장욱미술관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 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작은미술관, 여섯 곳의 작은 울림이야기

2015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성과집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작은미술관, 여섯 곳의 작은 울림이야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은미술관, 여섯 곳의 작은 울림이야기

2015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성과집





작은미술관 SMALL MUSEUM

작은미술관 SMALL MUSEUM

2015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성과집

작은미술관, 여섯 곳의 작은 울림이야기

2015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은 미술관이 없거나 미술문화 확산이 꼭 필요한 지역의, 공공 생활문화 공간을 일상 속 미술공간으로 재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시행 첫 해인 2015년에 전국 곳곳 6개의 작은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우리 동네, 친구네, 집 근처, 고향 골목에 자리 잡은 미술관을 만나보자.

작은미술관,
여섯 곳의
작은울림이야기

2015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성과집

작은미술관
SMALL
MUSEUM



작은미술관, 지역空間을 共有하다 4

작은미술관, 사업개요 및 성과 6

작은미술관, 한눈에 둘러보기 12

작은미술관,
여섯 곳의 작은 울림이야기

두드림 작은미술관 20

소록 작은미술관 Art Laundry 40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56

우리미술관 72

두계 장옥미술관 90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 108

작은미술관,
지역空間을 共有하다







잠들어 있던 지역공간을 미술관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일반적으로 미술관이라는 장소를 떠올리면 화려하고 우아한 예술가들을 위한 곳으로 다소 우리 삶과는 동떨어진 이미지를 준다. '그런' 미술관이 우리 '동네'에 생긴다니 의아하고 왠지 어울리지 않아 불편할 것 같았다.

우리 동네, 내가 늘 지나치던 그곳에 들어선 작은미술관

작은미술관은 기존의 선입견을 보기 좋게 타파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일단 규모부터 친근하게 다가온다. 동네 산책을 하다가 마주치던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그 건물에 살포시 들어선 것이다.

작년에 조성된 여섯 곳의 작은미술관이 자리한 곳은 '오래전에 보건소였으나 지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빈 공터'였고, '한 번도 장이 열리지 않아 발길이 끊겼던 시장 옆 건물'이었고, '동네 주택가에 위치한 주민센터 분소'였고, '옛 구립 세탁소로 지금은 방치된 곳'이었고, '패션지원센터에서 비어 있는 로비'였다.







예술가라고 특별한 지역에서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고흐, 고갱, 피카소와 같은 유명한 화가들도 처음에는 어느 작은 지역에서 활동했을 것이다. 화려하고 우아한 예술가를 떠올린다면 예술가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지 모른다. 미술가나 예술가 중 온전히 예술 작업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술가의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파트타임 일을 해야 한다는 뉴스를 언젠가 한 번 쯤 들어봤을 것이다. 예술가들에게 값비싼 전시 대관료 없이 본인의 작품을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 더군다나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과 작품을 나누고 소통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일 것이다.

내가 예술을 하다니!

소시적 초등학교, 중학교 미술시간에 하던 미술 작업이 우리가 하던 예술 활동(?)의 전부였다. 예술이 얼마나 우리 삶과 가까이 있고 친근한 것인지 작은미술관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특히 예술가들과 작업을 함께하고 또 완성된 작품을 보며 뿌듯하기도 하거니와 멀게 만 느껴지던 예술이 나의 삶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내가 예술을 하다니!'

처음에 왠지 어울리지 않고 불편할거라 생각했던 작은미술관은, 우리 주민 모두로부터 짧은 시간 안에 공감대를 불러올 수는 없겠지만, 이슬에 옷이 젖듯 어느 순간 우리 동네,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 행복과 꿈을 공유하는 작은 미술관이 되길 기대해 본다.

작은미술관,
사업개요 및 성과

사업개요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은 시각미술 문화공간이 절실한 지역에 지역 유휴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미술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의 문화 향수권을 확대 및 신장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추진내용

하나. 등록 미술관이 없거나 미술공간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생활문화 공간을 활용한 작은미술관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둘. 기존 생활문화공간을 활용해 공간 조성과 시설 확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시 및 부대 프로그램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셋. '작은미술관 컨설팅단'을 운영해 미술관별 정체성 확립을 돕고, 미술관별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인력 역량 제고를 지원하였다.

운영 Process

사업계획 및 준비
- 사업계획 수립
- 작은미술관 세부계획
  -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
- 작은미술관 사업 공고 및 접수

모집 및 선정
- 지원 대상 심의
  - 1차 서류 2차 현장 점검 3차 인터뷰
- 지원 대상지역 선정 및 단체별 맞춤형 컨설팅
- 최종 사업계획 확정
  - 6개 지역(두드림 작은미술관, 소록 작은미술관 Art Laundry,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우리미술관, 두계 장욱미술관,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
- 오리엔테이션

모니터링 및 홍보
- 현장 모니터링
- BI 개발 및 온라인 홍보
  - 온라인 홍보, CI 개발 등

작은미술관 운영
- 작은미술관 공간 조성
- 작은미술관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 작은미술관 모니터링

사업종료
- 평가보고서 작성
  - 사업성과 토론회 개최
  - 사업성과 공동전시 추진
  - 사업성과 자료집 제작
- 사업 결과보고

숫자로 보는 성과

2015년 12월 말 기준

지역

전국

작은미술관 수

6개소

관람객 수

23,436명

행사 전시 건수

71건

언론보도 건수

200건

운영실적 및 사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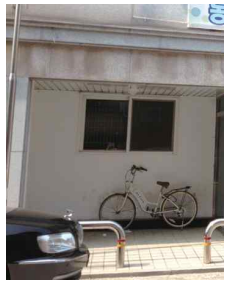
전국 6개 지역에 작은미술관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마을창고, 구 보건소, 패션지원센터, 소록도병원 세탁실, 주민센터 분소, 공휴지 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공공간, 지역 중심의 유휴공간 등을 소박한 미술공간으로 조성, 활용함으로써 미술 관람이 어려웠던 지역주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시키고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여 풀뿌리 문화융성에 기여하였다.

패션, 관광, 역사 등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전시와 지역 특색의 전래동화를 소재로 한 동화극이나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의 삶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등 지역주민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예술을 매개로 주민들 간 화합을 도모하고 미술과 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사랑방으로 기능함을 추구하였는데, 이는 해당 지역별 신문·방송의 관심도 높이는 계기가 되어 개관부터 현재까지 200여 건 이상 언론에 보도되는 등 시범사업으로 높은 성과를 얻었다.

작은미술관 별 사업성과

기관명	지역	주요성과
두드림 작은미술관	경기도 동두천	· 동두천시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패션지원센터에 공간을 조성함 · '예술+패션'을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하고, 워크숍 등을 추진함
소록 작은미술관 Art Laundry	전남 고흥군	· 소록도병원 구 감금실, 세탁실을 활용한 전시를 개최함 · 김주현, 이명호, 한성필 작가 등이 소록도 주민대상 워크숍 참여함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경기도 안산시	· 공업단지에 위치한 주민센터 분소를 활용함 · 외부에 큐브형 전시공간을 별도 설치해 사업 주목도를 높임
우리미술관	인천시 동구	· 인천 동구 소유 공가(空家)의 내외부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함 · 예술 교육, 워크숍 등을 추진해 공동체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킴
두계 장옥미술관	충남 계룡시	· 옛 장옥을 활용한 전시공간을 조성함 · '오일장에 가듯 즐거운 마음으로 미술관에 가자' 슬로건을 만들어 사용함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경남 남해군	· 구 보건소를 활용함 · 남해의 풍경, 남해의 작가를 적극 활용함

사진으로 보는 성과

	조성 전	조성 후
두드림 작은미술관		
소록 작은미술관 Art Laundry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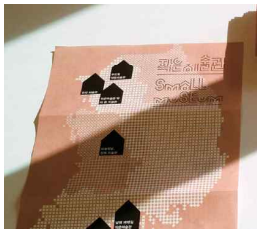
	조성 전	조성 후
우리미술관		
두계 장옥미술관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작은미술관,
한눈에 둘러보기

일상 속 작은미술관
2015 작은미술관 조성 결과 공유 전시
2016. 3. 24(목) ~ 30(수)

2015년 8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6곳의 기관은 그 후 7개월간 쉼표 없이 달려왔다.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히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사업이 아닌 작은미술관이라는 '공간'도 '구축'해야 했기에 더 그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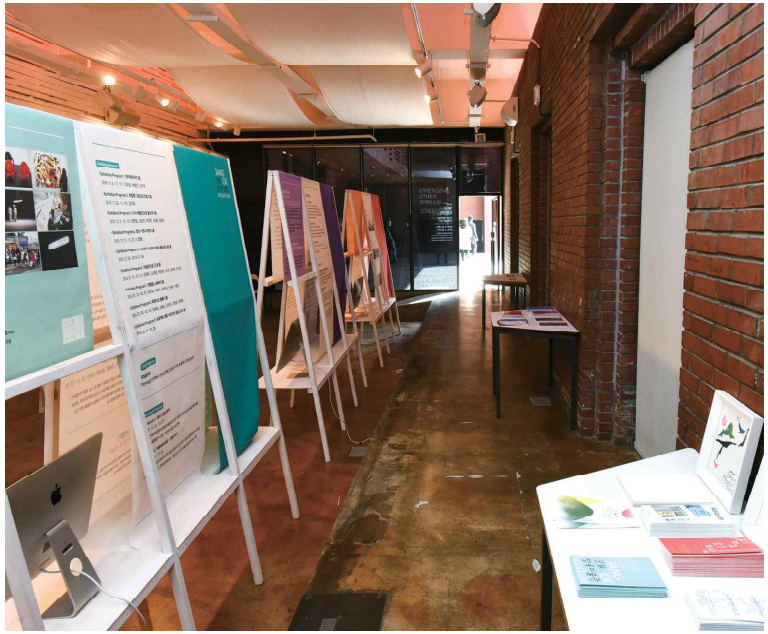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 시점인 지난 1월 6개소 담당자들은 토론회를 통해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 작은미술관 운영에 대한 궁금증은 남아있었는데, 3월 다시 모일 기회가 생겼다. 결과 공유 전시회 및 워크숍이 개최된 것이다. 단순히 사업 관계자만을 위한 전시회는 아니었고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행사였다.















전국 곳곳의 작은미술관

3월 24일 목요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7일간,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결과 공유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는 사업에 참여한 6개소의 작은미술관과 그 미술관에서 운영했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이 게시되었다. 각 부스에 배치된 영상화면을 통해서도 작은미술관을 만나볼 수 있었다.











일상 속 미술관
친밀한 미술관

전시회 마지막 날 진행된 워크숍에서 6개소 작은미술관 담당자, 전문가, 관계자들이 모여 '2016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과 방향을 발표하고 발전 방향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워크숍 진행에 앞서 두드림 작은미술관 개관식 때 발표한 오유경 작가를 초청하여 <Chair Floured / 밀가루 풀을 입힌 광목> 퍼포먼스로 프리오프닝을 열었다.

워크숍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황진수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두 명의 전문가가 발제를 했다. 첫 번째로 발제한 작은미술관 기획자인 이재준은 '작은미술관에서 친밀한 미술관'이라는 2016년도 비전을 제안하면서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발제한 유알아트 김영현 대표는 "6개소로 시작한 작은미술관이지만 앞으로 작은도서관처럼 정책적으로 규모화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조주연, 소록도 작은미술관 Art Laundry 김대균, 두계 장옥미술관 서정민, 우리미술관 김승근,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 황무현, 두드림 작은미술관 박진경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2015년도 사업 리뷰와 2016년도 비전과 계획을 간단히 발표했다. 발제자, 담당자, 관계자 등 모든 참석자들은 준비된 다과를 나누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2016년도 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서로 응원하며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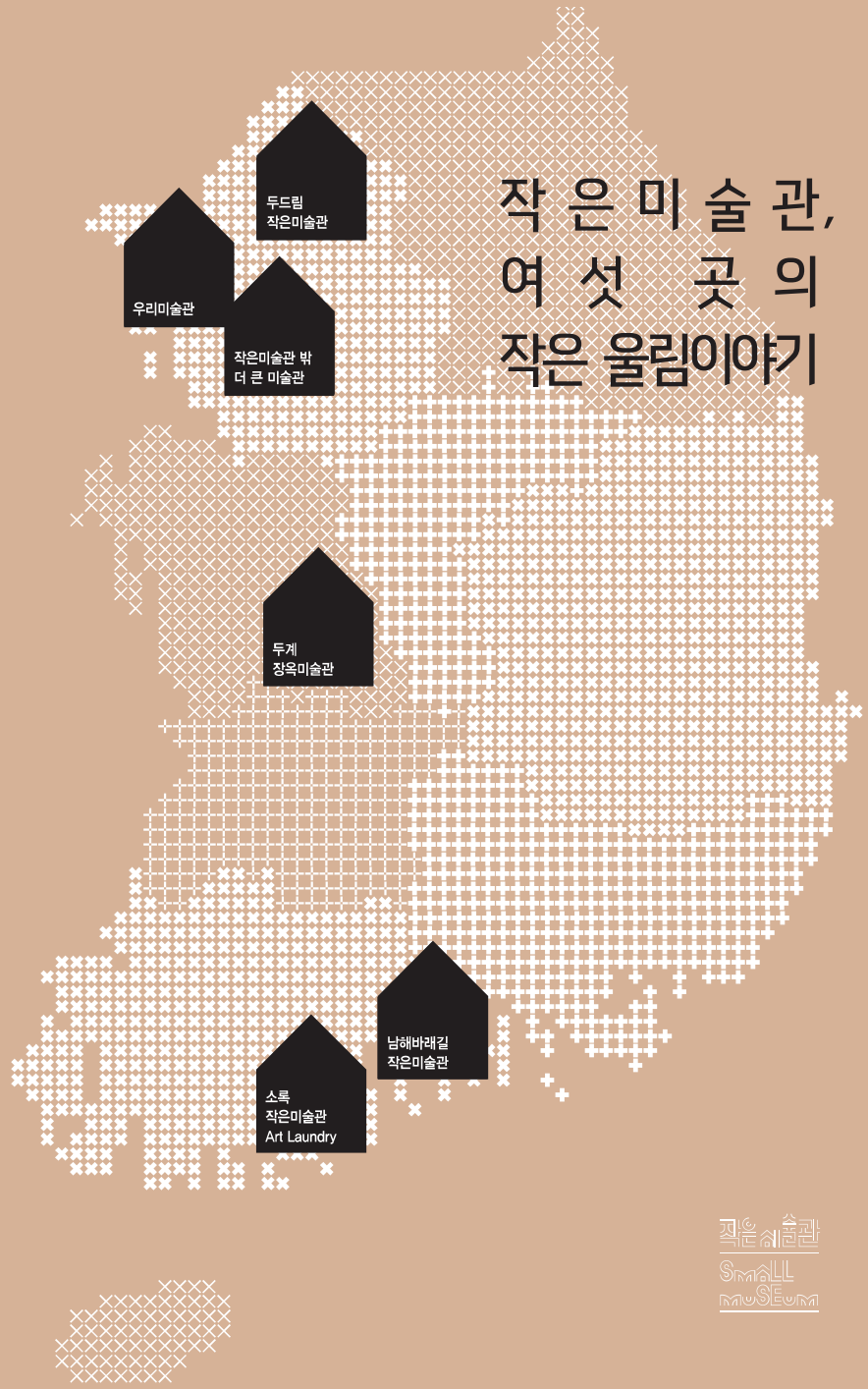












작은미술관,
여섯 곳의
작은 울림이야기

작은미술관
SMALL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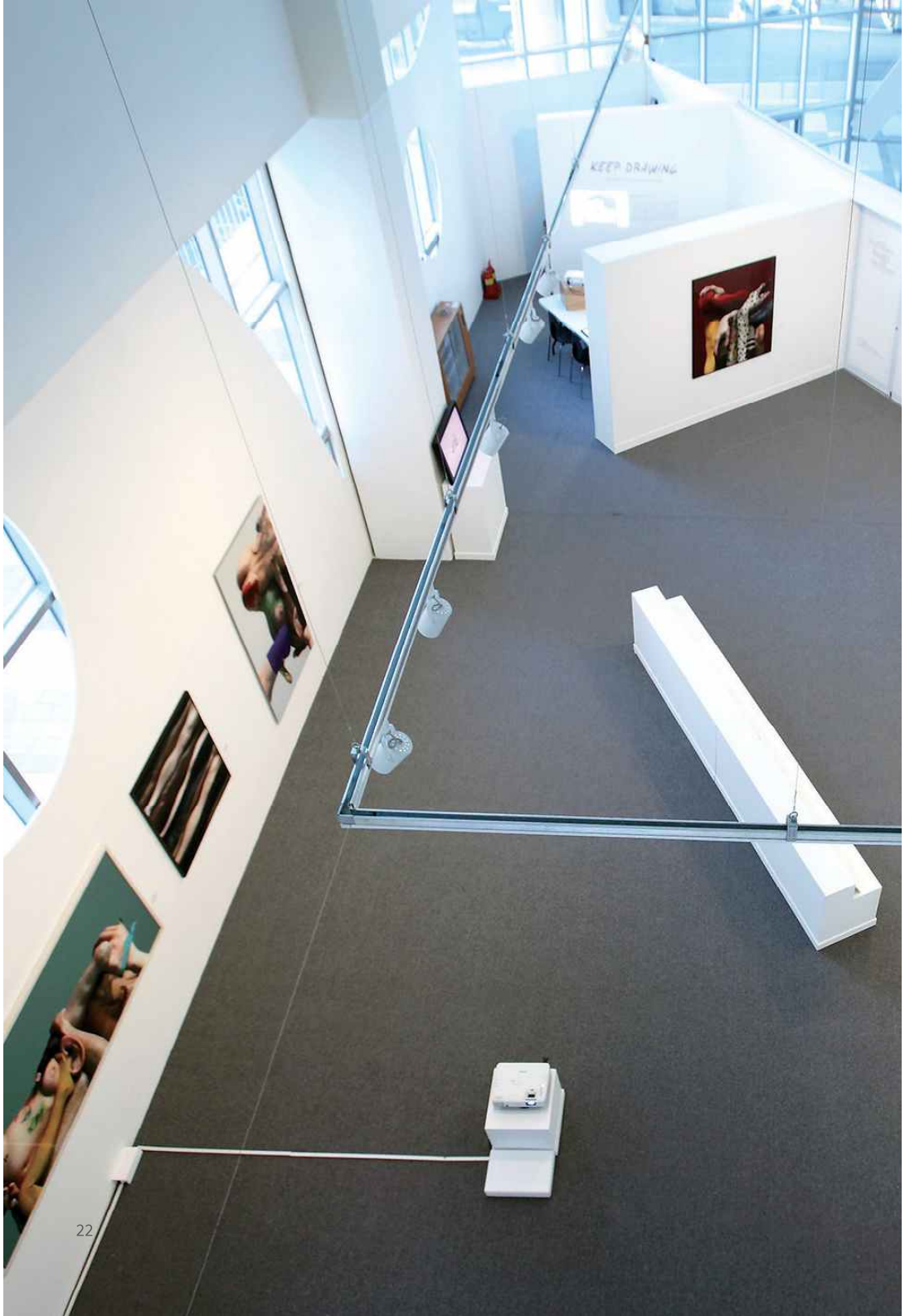


두드림 작은 미술관

경기도 동두천로 97
두드림패션지원센터 1층

031. 876. 5847

www.facebook.com/2015dod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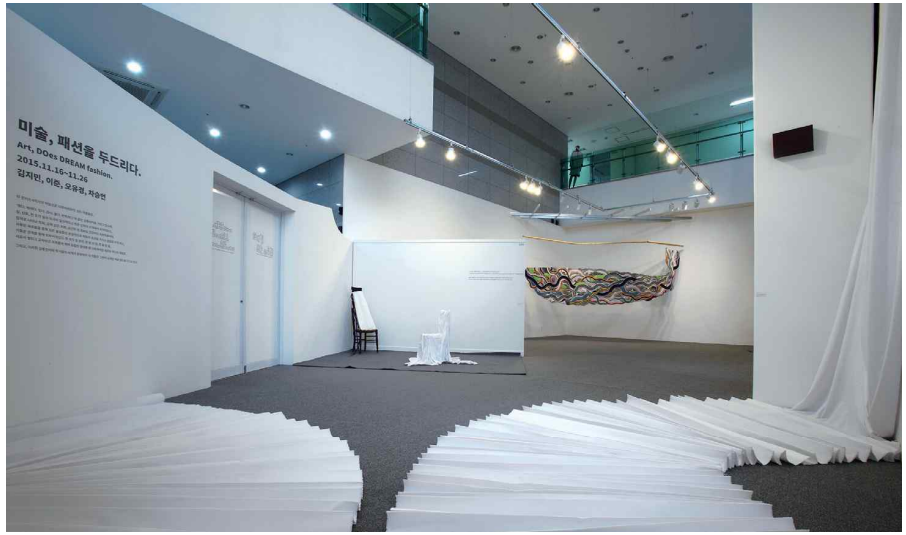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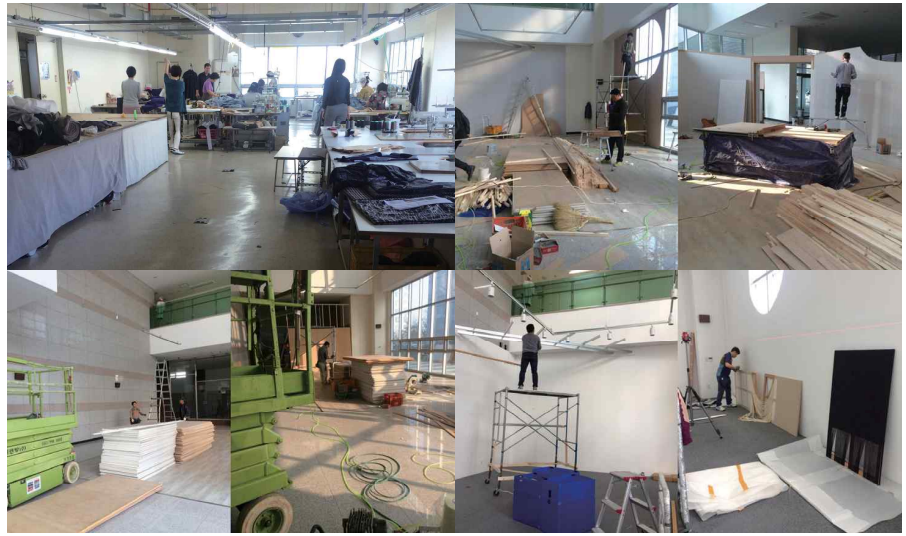
개관일 2015년 11월 16일
규 모 1층 132.23㎡

Art into the community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작은미술관

두드림 작은미술관은 시각예술로 문화적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자 2015년 11월 16일에 동두천시 동두천로(지행동) 두드림패션지원센터 1층에 개관하였다. 다양한 장르의 전시와 두드림만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기획 프로젝트 등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작은미술관'으로 자리 잡고 예술문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역공간 찾기

기지촌, 한국 록의 발상지 그리고 또 다른 시작

동두천시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의 이유로 주둔한 미군부대로 인하여 군사기지로 이미지가 굳혀졌고, '기지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안은 채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다시 말해서 지리적 특성상 시의 60% 이상이 산지이고 평지에 주둔한 미군부대들로 인하여 다른 산업적 기반시설이 들어설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동두천 시민들의 피해의식과 불만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 이면에, 동두천시는 사실상 국내에 처음 록(rock)을 알린 한국 록(rock)의 발상지며 예로부터 소금강이라고 불리는 소요산을 옆에 두고 있어 해마다 지역축제도 열리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각예술 분야는 어떠한 기반시설도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미군부대의 철수는 동두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대학교와 기반시설들,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기지촌의 이미지도 탈피하고자 흔적만 남은 보산동 기지촌에 벽화그리기 프로젝트로 문화거리도 조성됐고, 이를 관광 지역으로 이어가고자하는 움직임도 더해지고 있다. 또한 주변 산지를 살려 숲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시설도 구상하고 있는 등 지난 60년간 자리 잡은 군사기지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이미지로 탈바꿈 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한 가운데 두드림 작은미술관은 시각예술로 문화적 작은 움직임을 만들고자 동두천시 신시가지인 지행역 근처 두드림패션지원센터 1층 로비에 2015년 11월 16일 문을 열었다. 센터는 51개 봉제공장과 바이어 미팅룸, 전시판매장, 공동 작업실, 식당 등의 시설을 고루 갖춘 도시형 공간이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에 둘러 싸여 있고 앞뒤로 교육청, 주민센터, 시설이 잘 갖춰진 문화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시각예술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는 곳에 들어선 작은미술관은 작지만 동두천시에 처음으로 개관하는 '미술관'이기에 지금의 현대미술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예술 장르의 작업을 소개하고 미술관으로서의 기본역할을 하고자 했다. 또한 봉제공장들이 있는 그 장소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공간으로 자리 잡길 희망했다. 먼저는 가벽 공사 기간 내내 눈살을 찌푸린 상주 상인들에게 한 발짝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작은 두드림을 만들고자 했다. 향후에는 지역주민만을 위한 공간이기보다 동두천시를 방문한 사람들이 꼭 들러가고 싶은, 작지만 힘 있는 그런 작은미술관이 목표이다.





공간변신

시각예술로 패션을 두드림

두드림패션지원센터는 연면적 16,406㎡의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총 56개의 공장과 바이어미팅룸, 식당, 전시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3년 11월 준공되었다. 센터 1층에 위치한 두드림 작은미술관 전시공간은 40평이 조금 넘는데, 천장의 높이는 약 8.5m, 전시장 높이는 2.3m부터 4.2m로 벽 디자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가벽은 옷의 패턴을 자르듯, 재단하는 느낌으로 디자인되었고 그러한 디자인이 만드는 곡선과 무늬 사이로 자연광이 들어온다.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2015년 3월 의정부에 북부문화사업단을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시의 두드림 작은미술관 개관은 문화예술의 작은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시각예술 활동에 중점을 둔 이 공간은 시민들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기반시설과 함께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지촌이라는 부정적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 경기북부의 예술문화를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두드림 작은미술관은 크게 세 영역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장소 특성 을 살려 봉제와 연관된 소재, 인체나 패션 오브제가 예술로 확장된 작업을 선보인 간접적 패션 전시, 이러한 전시작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작은 미술관이 동적공간이 되어 주변 기관으로 뻗어나가는 찾아가는 작은미술관 프로젝트로 나눌 수 있다.

작은미술관의 시작, Story 1

전시미술과 패션의 콜라보



밀가루 풀을 입힌 광목 개관식 퍼포먼스

작　가　오유경

개관식에서 조은주의 오카리나 연주와 함께 오유경의 <Chair Floured / 밀가루 풀을 입힌 광목>이라는 작품에 대한 퍼포먼스가 있었다. 이 퍼포먼스는 의자를 덮은 천처럼 보이는 형태 위에 퍼포머가 뜨거운 물을 부으며 시작되었다. 뜨거운 물에 의해 천이 형태를 잃어가자 비로소 관람객들은 이것은 딱딱한 의자 형태의 천일뿐이었음을 본다. 퍼포머는 형태를 잃은 부드러워진 천을 다시 의자에 씌움으로 또 다른 형태를 가진 의자를 만드는데 이는 천 본연의 부드러움과 밀가루 풀로 인하여 빳빳함이라는 성질을 가지게 된 천의 이질성을 한 공간에 공존시키는 작업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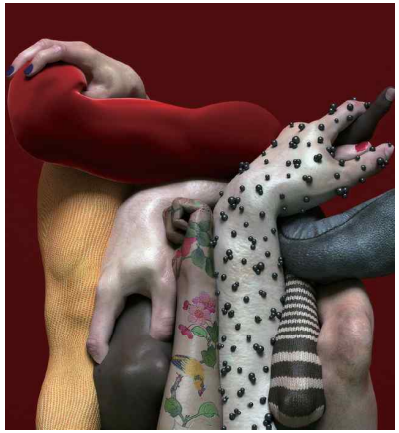
미술, 패션을 두드리다 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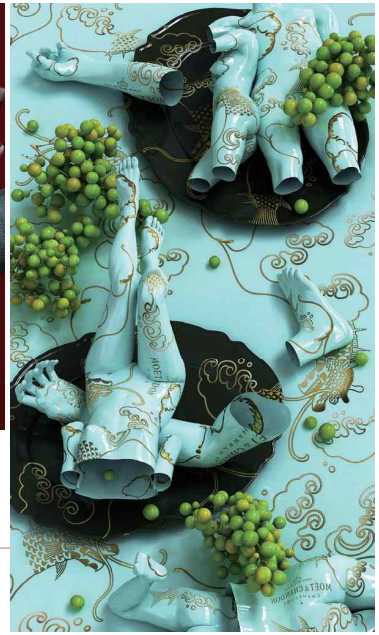
기　간　2015년 11월 16일 ~ 11월 26일

참여작가　김지민 오유경 이준 차승언

2015년 11월 16일 개관이래로 2016년 2월 17일까지 총 4번의 전시를 선보였다. 개관전은 봉제공장 상인들에게 친근한 소재인 실·상표·천을 이용한 작품을 소개하였다. 40평 남짓의 작은공간이지만 천장이 높은 점을 살려 김지민의 대형 고래작품(상표로 제작)을 공중에 달고 실을 소재로 작업한 이준과 차승언 작업을 양 벽면에, 그리고 오유경의 광목(천)을 이용한 작업은 미술관 입구공간에 배치하였다.

네 명의 작가 작품들은 모두 '엮다·꿰매다·잇다·감다·풀다·반복하다'와 같은 공통언어를 가지고 있다. 실·상표·천과 같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작은 단위를 소재로 입체로 나타난 회화·공예 같은 회화·공간이 된 회화로 간접적인 회화작품이다. 사용된 재료들을 통해 모든 물질들은 본질적으로 회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하고 이들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있다. 한 조각 한 조각, 한 땀 한 땀, 한 줄 한 줄, 서로가 쌓이고 교차하고 조화롭게 엮여 집합된 형태를 띤 공동체적인 새로운 하나의 개체가 되었고, 이러한 공통언어에 작가들의 세계가 반영되어 각각의 작업은 그만의 또렷한 색과 생각을 지니고 있다.





몸, 옷, 마네킹 展

기　간　2015년 12월 01일 ~ 12월 11일

작　가　김 준

첫 번째 전시가 입체와 설치 중심이었다면 두 번째 전시는 3D 디지털 이미지가 만들어낸 실물 같은 사진과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평면에 움직임과 소리가 가미된 작품이었다. 해체되고 재조합된 인체에 화려한 문신과 문양, 색채를 입혀가며 인간내면의 세계를 드러내는 김준의 작업으로 구성되었다.

작품은 감각의 총체인 몸이 여러 옷을 입고 있으며 단순한 기능의 두 번째 피부로서의 '옷', 그리고 사상과 관념, 욕망이라는 '옷'을 덧입고 있다. 이 옷은 보이지 않을 뿐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문신과 같다. 이 '옷'을 마네킹과 같이 오브제가 된 인체에 새기고 입히며 우리 내면의 보이지 않는 추상문신을 미학적으로 드러낸 작업을 사진과 애니메이션으로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랑과 브랜드, 술에 쉽게 취하는 인간을 깨지기 쉬운 도자기로 표현한 <fragile>의 <drunken> 시리즈, 핑크빛 버블로 표현된 고통이라는 종양이 점점 커져 결국은 터져버리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사치품을 대표하는 문양과 여백처리로 추상회화를 떠올리는 최신작 <somebody>시리즈까지 김준 작가의 폭넓은 작업을 만날 수 있었다.





Newly Clothed 展

기　간　2015년 12월 17일 ~ 2016년 01월 23일

참여작가　강선미 김민형

세 번째 전시는 봉제공장 로비라는 장소 특성을 살린 강선미의 공간 드로잉(벽 드로잉)과 사물과 존재가 조합된 김민형의 초현실적 대형 패션오브제를 선보였다.

전시공간만이 가지는 장소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는 강선미는 현존하는 공간(벽)을 캔버스 삼아 테이프를 붙이고 떼어내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작품은 전시기간에만 실재하며 전시종료와 함께 모두 사라진다. 전시공간에서 '관계(between)' 작품을 선보였다. 4.2m 높이의 두 벽을 6개의 실패[실:패]가 차지하고, 자신을 꽁꽁 감싼 5개의 실패와 자신의 실을 풀어 다른 실패들 사이에 던져놓음으로 관계를 시작하고자하는 한 개의 실패 사이의 관계를 그렸다. 전시장 벽을 가로지르는 대형 드로잉은 현기증을 유발하면서 관람객을 작품으로 끌어들였고, 관람객은 실을 잡거나 풀려는 퍼포먼스를 하며 전시작의 일부가 되어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다른 전시장에서 여성의 패션 수단이자 일상에서 벗어나 변신을 가능케 하는 하이힐들이 또각또각 소리를 내는 말굽이자 화려한 깃털을 입은 새로 변신하여 들어왔다. 김민형의 작품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소재와 살아있는 '말'과의 초현실적 조합을 친근한 소재를 사용하여 독특한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전시장 중간의 유리타일로 제작된 2m 크기의 말이 된 하이힐은 조명에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근원적 욕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여성 존재의 생생한 소리를 또각또각 언어로 전달한다. 쇼핑 박스에 갇힌 다양한 색상과 말의 모습을 한 힐들, 화려한 깃털을 단 새가 되었지만 새장 속에 갇힌 힐들, 그리고 작가의 일상을 담은 일기 같은 드로잉 등이 전시되었다.

작은미술관의 시작, Story 2

정적 공간에서 동적 공간으로의 미술관 : 찾아가는 작은미술관





작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

기 간 2016년 01월 14일 ~ 02월 02일

참여기관

동두천 행복꿈터아동센터	동두천 애신복지아동센터	동두천 드림지역아동센터
파주 적암초등학교	의정부 청소년여성쉼터	양주 다니엘지역아동센터
동두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두천 동안지역아동센터	

내 용 <작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의 모티브로 작은미술관이 동적 공간이 되어 동두천을 중심으로 경기북부의 기관을 방문하여 아트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멀티아티스트 김태중의 지도하에 두 명이 1조가 되어 공동 펜드로잉과 가면백 만들기, 세상에서 단 하나인 옷 만들기를 진행하였고 이윰액츠(IUM ACTS)와 함께 예술로 삶의 이야기를 표현하며 스토리아트로 창조적 자화상을 발견해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 기회는 작은미술관이 정적인 공간에서 미술관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은 기관으로 뻗어나가는 동적 공간이 되어 문화 향유기회를 나눔으로 '함께하는 두드림 작은미술관'으로의 예술문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We're small-Artists, OUR SHOW! (작은 작가들의 전시)

기 간 2016년 02월 03일 ~ 02월 17일

작품소개 찾아가는 작은미술관에 참여한 '작은 작가들의 전시' 프로그램이다. 총 8개 기관에서 13회를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물로 전시 오프닝을 파티 형식으로 함으로 참여자들을 미술관으로 초대하여 상호 이동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오프닝에 참여한 아이들은 대부분 미술관 방문이 처음이었고 전시장 벽과 홍보엽서의 참여작가 부분에 각자의 이름이 있음을 마냥 즐거워했다.







작은미술관의 시작, Story 3

천과 미술의 화려한 만남



두드림 작은공방

일 시 2015년 11월 12일 ~ 12월 17일 (매주 목요일 13시 ~ 16시, 총 6회)

내 용 개관전 작품으로 직물을 짜 캔버스 천을 제작하는 형태의 작품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였다. 타피스트리를 활용해 직조를 체험하고 직조기술과 버려진 짜투리 천을 활용하여 작은미술관 로고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10명의 지역주민들이 협동하여 제작함에 따라 지역민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미술관을 방문하도록 유도하였다.



빨간 가위 패션교실

일 시 2015년 11월 14일 ~ 12월 5일 (매주 토요일 10시 ~ 12시, 총 4회)

내 용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천, 단추, 염색크레용, 다리미, 솜 등과 같은 부자재를 활용해 나만의 쿠션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바느질로 조형물을 제작하여 구조적인 작업을 만드는 허보리 작가의 지도 아래 진행되었다.

청소년 메이크업교실

일 시 2015년 11월 21일 ~ 12월 12일 (매주 토요일 13시 ~ 15시, 총 4회)

내 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메이크업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작은미술관의 시작, Story 4

미술관에서 생긴 일



우리 동네 작은 벼룩시장 <두드림 마켓>

기 간 **1회** 2015년 11월 28일 | **2회** 2015년 12월 13일

내 용 '동두천 알뜰맘'과 연계하여 운영한 프로그램이다. 작은미술관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패션 관련 아트상품, 입지 않는 옷이나 패션소품 등을 물물 교환할 수 있는 지역 내 작은 벼룩시장을 마련하였다. 판매를 통한 이익창출 보다는 지역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공동체 영화 상영회 <위로공단>

일 시 2015년 12월 05일 13:00 ~ 16:00

내 용 과거에서 현재까지 아시아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인터뷰와 영상을 엮어 일과 삶, 행복의 가치를 묻는 임흥순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를 통해 작은미술관이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패션산업, 패션과 예술 등의 주제로 지역과 소통하고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미술관 홍보영상 제작 프로젝트 <KEEP DRAWING>

기 간 2015년 12월 01일 ~ 12월 31일

내 용 4명의 아티스트로 이루어진 애니메이션&미디어아트 그룹 스튜디오 웰터가 2011년부터 진행해 온 <KEEP DRAWI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두드림 작은미술관이 다루고 있는 '패션과 미학', '패션과 몸'을 소재로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과 함께 작은미술관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하였다.

기획자의 변

경기문화재단 최명진

2015년 작은미술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소한 이야기와 즐거움이 있었다. 그리고 문화는 형성, 만들어 가는 것이라기보다 '스며드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형성된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아름답고 창조적인 문화가 스며들면 깊이 자리매김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자주 찾는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의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숲의 짙은 색상과 공간은 해가 거듭될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미 멋지고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을 가져다 심은 것과는 다른, 10년이 넘게 그곳의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며 만들어진 깊이이다. 처음 공원이 조성되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깊이이다.

단기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달렸던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면 뭔가를 형성하기 위해, 시각적인 결과물을 뽑아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여러 회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전시로 많은 관람객과 소통하기를 원했다. 홍보엽서도 만들어 지행역에서 배포하고, 여러 기관에 전화를 돌렸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의 자연스러운 접근성도 기대했다. 그러다 깨달은 것은 이러한 노력이 필요 없었던 건은 아니었지만 시각예술 문화가 없던 곳에 하나의 문화가 생성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자주 찾는 공원의 숲이 해가 거듭될수록 주변에 맞게 깊이를 만들어내듯.

작은미술관을 운영하면서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 만남도 있었다. 인천에서 아트가이드 광고를 보고 먼 길을 온 가족, 경기북부에 새로운 스타일의 전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한 가족들, 동두천 시내에 편하게 들를 수 있는 미술관이 있어 좋다며 조카들과 학생들을 한, 두 명씩 매일 데리고 오셨던 선생님, 어느 주말 오후 밝은 미소로 다가와 전시장에서 놀다가도 되겠냐는 허락을 구한 후 전시된 작품들을 자기 스타일로 카피하고 퍼포먼스를 하다 부모님이 억지로 데리고 갔던 두 자매…

이러한 소소한 이야기가

바로 문화가 생성되는 작은 움직임이었던 것 같다. 이 작은 움직임이 아름답고 창조적인 예술문화를 만들어가는 동기가 되었길 바라며, 나아가 이 자발적인 움직임이 확산되어 주변 지역까지 번져가기를 기대해본다.



소록
작은
미술관
Art Laundry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선창길 12-9

studio.chakchak@gmail.com

http://sorok-smallmuseum.org



STUDIO 태옥

소록 작은미술관 ART LAUNDRY

Art into the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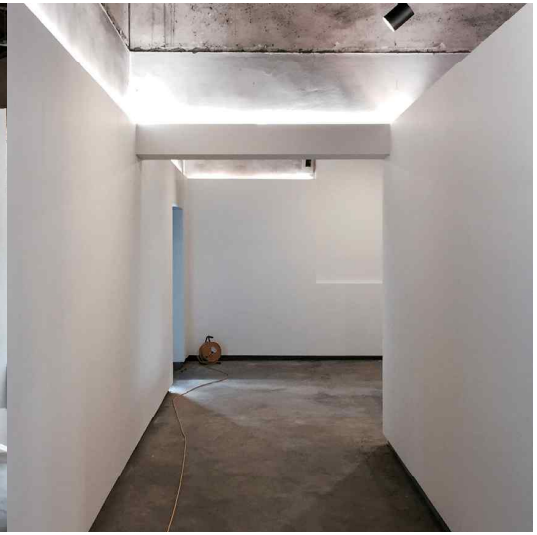
버려진 세탁소, 예술을 담다

2016년이면 소록도가 100주년을 맞이한다. '작은 사슴'을 닮은 모양이라고 해서 소록(小鹿)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 섬은 100년 질곡의 역사를 묵묵히 함께한 나무와 돌과 바다와 그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건축물이 있다. 착착스튜디오는 과거 한센인들을 위한 세탁소로 사용하던 공간의 흔적을 살려 둔 채 소록 작은미술관 Art Laundry(이하 소록 작은미술관)로 새 틀을 만들고 <고립과 고독>, <섬과 섬 밖으로의 여행>을 담은 두 차례의 전시를 기획하였다.







지역공간 찾기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개관일 2015년 10월 20일
규 모 1층 198㎡

소록 작은미술관 ART LAUNDRY

소록도는 1916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집단 수용시설로서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소록도병원이 소록도 전체를 관할하고 있다. 2007년 고흥과 소록도를 잇는 소록대교가 만들어진 이후 외부인의 소록도 방문이 수월해졌는데 현재 연간 30만 명 이상이 소록도의 잘 보존되어 있는 자연과 해안가 등을 보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은 소록도 입구의 중앙공원과 해변가 등 일부지역이다.

오랜 세월 외부와 단절된 채 지내온 소록도의 마을 주민들은 예술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매우 적었고 위문 공연이나 주민들의 작품 전시 정도만 볼 수 있었다.

착착스튜디오는 소록 작은미술관을 통해 소록도 주민에게는 예술, 특히 미술 전시나 예술가들과 교류의 기회를 만들고 소록도를 찾는 외부인에게는 소록도 혹은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사회적 편견을 벗기 위한 시도로서의 '예술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착착스튜디오는 국립소록도병원의 병원장(박형철)과 직원들, 주민자치회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며 예술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감하였다. 이는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이벤트성의 예술 프로그램이 아닌 점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사이트 뮤지엄'으로 확장하는 그림을 그리게 된 출발점이었다. 2015년 8월, 그 첫 시작점으로 소록도의 공간 가운데 소록도는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갖고 있는 수십 개의 건축물들이 있다. 미술관으로 시공이 가능하고 예술적 정취를 갖고 있으며 외부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을 찾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당초 검토된 병원 로비는 현대식 건물이 갖고 있는 차가운 느낌과 매달 벌어지는 주민 행사로 인해 미술관으로 개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고민 끝에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벽돌 건물이 갖고 있는 정취, 외부인과 주민생활공간의 경계에 위치한다는 장소적 장점들을 고려해 구 감금실 야외와 세탁실 건물을 미술관으로 재생하기로 결정하였고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한 달 반가량 공간 기획 및 시공을 진행하였다.

전시는 10월 20일부터 11월 16일,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작품이 교차되고 덧붙여지는 방식으로 두 차례의 전시로 기획하였다. 한성필(사진), 이명호(사진), 기타가와 타가요시(설치), 안경수(회화), 정동구(영상), 지민희(설치) 작가가 참여하였다. 그밖에 지민희, 정동구, 양승주 작가가 주민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소록도의 풍경을 작가적 시선으로 관찰하고 기록한 사진 작업을 박선민, 진효숙 작가가 사진집을 통해 발표하였다.



공간변신

기억의 흔적은 살리고, 경계의 거리는 좁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감금실 *ㅓ자형 붉은 벽돌 단층 건물로 과거 한센병 환자 중 원내 내규를 위반한 자를 격리·감금하던 곳으로 일제하에 환자들이 부당하게 구금·감시 처분 또는 체형 등을 받았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출처 www.sorokdo.go.kr) 의 야외와 감금실 통로에서 연장되어 있는 세탁실 내부를 전시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세탁실은 과거 한센병 환자들의 세탁물을 처리하던 공간으로 소록 작은미술관으로 리노베이트 되기 전까지는 창고처럼 사용되던 공간이다. 감금실-세탁실로 이어지는 진입로는 외부 관람객이 주로 이동하는 중앙공원의 입구에 자리 잡아 관객들의 진입도 수월하고 소록도 주민들의 거주지역과도 맞닿아 있어 주민들의 관람을 독려하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다. 전시장인 세탁실은 외부인의 진입을 차단해야 하는 조건이 따랐는데 벽을 세우는 대신 안과 밖의 경계를 낮추고 풍경을 차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메쉬천을 사용하여 물리적 거리감을 줄였다. 세탁실의 천장을 들어내어 층고를 높이고 'ㅅ'자 형태의 지붕의 특징을 그대로 살렸다. 이는 전시에서 설치 작품뿐 아니라 사이즈가 큰 작품을 관람하는데 탁 트인 시선을 제공하는 장점도 가져다주었다.

장기적 안목으로 '예술적 공간'으로서의 사이트 뮤지엄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전시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과거 세탁소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흔적을 살려 기존의 세탁기 설비 등은 작품들 사이사이로 언뜻 보이게 남겨두었다. 전반적으로 공간은 '기억과 흔적'을 존중하고 '경계 안팎'의 거리를 좁히는 것에 초점을 두어 기획하고 구성했다.







작은미술관의 시작, Story 1

개관전 '자연'을 열다

사회 전반에서 생태와 자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시는 다뤄지는 콘텐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록도민을 고려하여 시각예술 체험의 문턱을 낮추고 접근이 편안한 '자연'을 개관전의 주제로 삼았다. 소록 작은미술관은 자연을 예술창작의 소재로 차용하거나 생태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총 6인의 예술가의 작품들을 전시하였으며 그 외에 주민 참여 워크숍을 진행한 작가 3인, 소록도의 풍광을 담아 사진집으로 엮어내는 작가 2인 등 총 11인의 작가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고립과 고독,
섬과 섬 밖으로의 여행

전시는 1, 2차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자연의 순환 고리를 설치작품으로 표현한 기타가와 타가요시의 작품, 소록도에서 수집한 자연물을 모빌의 형태로 담은 지민희 작가의 작품과 보존되고 관리되는 하나의 인공물로서의 자연을 담은 정동구 작가의 영상작품, 도시에서 발견되는 일상 속 자연을 담아낸 안경수 작가의 회화와 드로잉, 남극과 북극의 이미지를 담은 한성필 작가의 야외 사진 설치물, 하나의 실존적 존재로서의 나무 이미지를 담은 이명호 작가의 사진작품 등이 전시를 구성하였다.





기획의 글

2016년이면 소록도가 100주년을 맞이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소록도를 소설이나 방송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접해 그 아픔의 역사가 어렴풋할 것이며, 심지어 소록도가 어떤 좌절의 역사를 가졌는지조차 모르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소록도는 작은 섬 위 하나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비밀과 상처의 기억을 간직하며 한 세기 같은 자리를 지켜왔다. 문득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백 년 동안의 고독』을 떠올려본다. 마콘도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몇 대를 걸쳐 되풀이되는 부엔디아 집안의 흥망성쇠 역사. 더 나아가 그 돌고 도는 시간 속에서 변함없는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고독과 사랑의 역사.

수없이 많은 이들이 소록도를 저마다의 이유로 거쳐 갔다. 그렇게 질곡 가득한 역사를 목도하면서 그곳에서 평생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수많은 이야기와 비밀을 상상해본다. 이들의 조용한 이야기는 소록도의 앞바다, 숲의 나무들, 작은 식물들,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작은 생물들도 함께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어 온 소록도이지만, 섬 바깥의 사람과 먼 나라에 대한 동경, 접하지 못한 세계와 보지 못한 이국적 풍광에 대한 꿈은 어느 누구보다 컸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매일의 잠자리에서 그들은 지구를 몇 바퀴고 돌아보는 여행을 했으리라.

본 전시는 소록도의 고립된 자연환경, 더불어 개발에서 비켜난 환경 덕분에 오히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본래 자연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는 소록도의 생태환경에 대한 예술적인 해석을 선보인다. 또한 남극과 북극의 빙하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지만 동시에 처절한 고립과 고독을 지닌 풍광을 전시함으로써, 소록도 안에 새롭고도 생경한 다른 차원의 장소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소록도의 주민들이 상상 속에서 여행한 그 먼 곳 어딘가와 닮아있길 기대하면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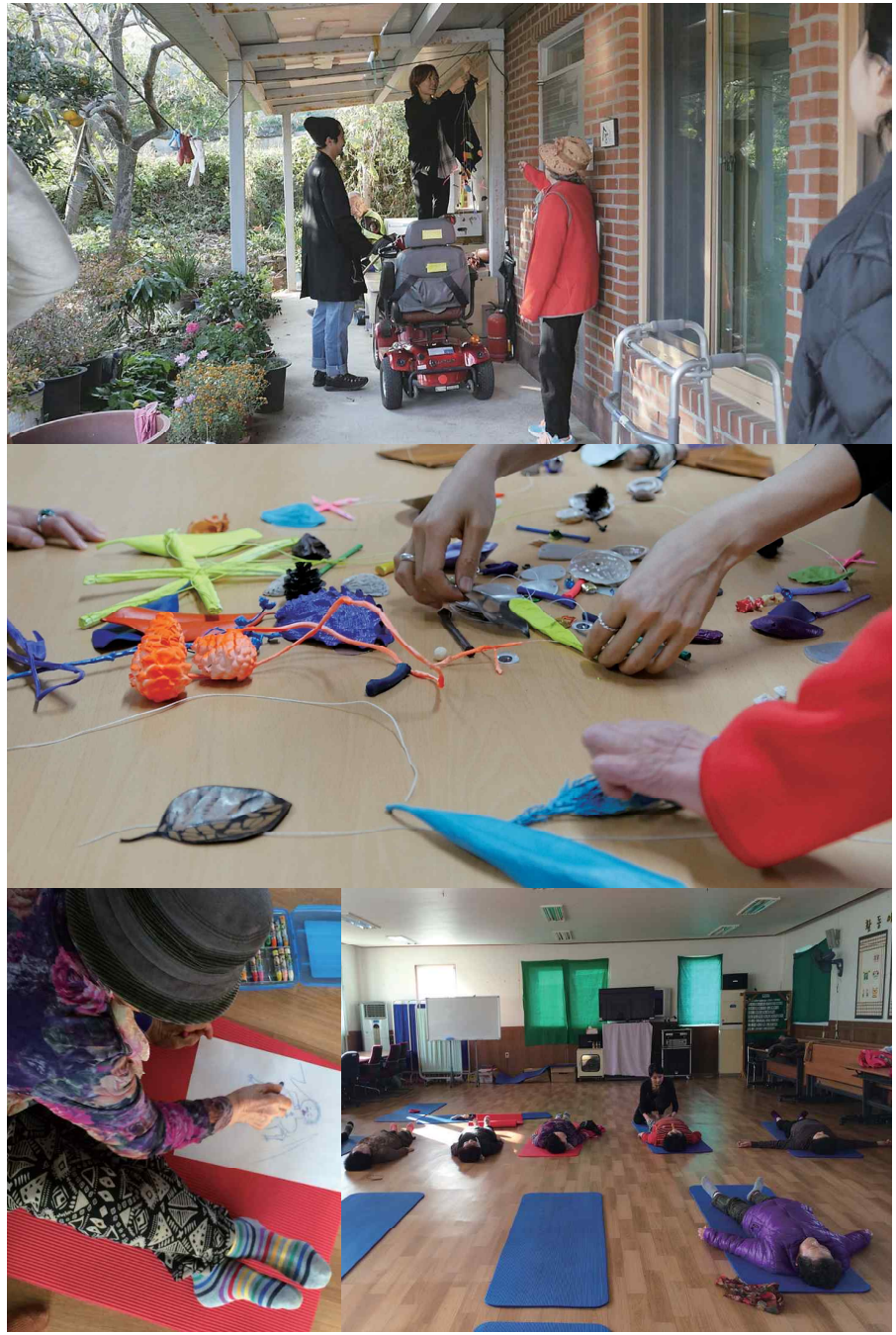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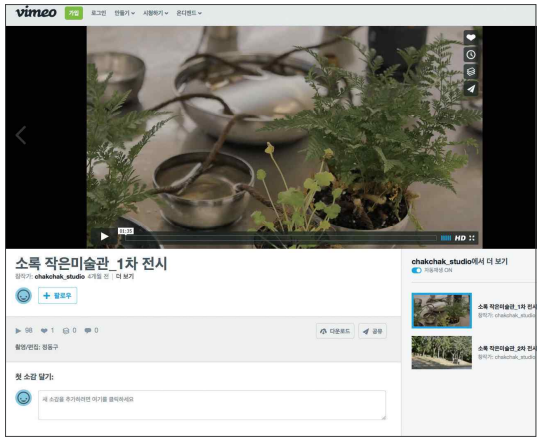
소록 작은미술관
ART LAUNDRY

작은미술관의 시작, Story 2

작은 울림의 시작, 공간 그리고 만남

정동구, 지민희 등의 전시 참여 작가와 함께 퍼포먼스 아티스트인 양승주 작가가 주민참여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은 소록도 주민들과 함께 섬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마을의 역사를 듣고 기록하는 '소록마을 구술사'와 자연에서 채집한 것들을 활용하여 모빌을 만들고 주민의 집 앞에 설치를 하는 '모빌 만들기 워크숍'과, 천천히 움직이며 자기의 몸을 발견하는 '움직임 워크숍' 등이 진행되었다.
세 차례의 워크숍은 주민과 예술가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며 영감을 주고받는 기회가 되었다.





작은미술관의 시작, Story 3

소록도,
자연을 담는 또 다른 시선

사진집 출간

전시를 단순히 보여주는 도록의 형태가 아닌 소록도의 자연을 한 단계 깊이 들어가 작가적 시선(박선민, 진효숙)으로 담아내는 사진집을 출간하였다.

영상 도큐멘테이션

전시 참여작가인 정동구 작가는 소록 작은미술관의 개관 전부터 전 과정을 기록하고 소록도 특유의 고요함과 고독감, 동시에 갖고 있는 다정함과 따듯함을 담아내는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착착스튜디오의 비메오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vimeo.com/user44965810

기획자의 변

착착스튜디오 **여혜진**

많은 이들에게 소록도는 신문이나 뉴스 등의 매체를 통해서만 접해봤을 것이고 '소록도=한센인 마을'이라는 이미지 외에는 어떠한 구체성이 없는 땅으로만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소록 작은미술관 Art Laundry(이하 소록 작은미술관)의 전시를 기획하면서 2016년이면 소록도가 100년이 된다는 것도, 이제는 한센병이라는 것이 감기처럼 쉽게 치료가 되는 병이라는 것도 한국의 근 현대사를 함께한 이 섬에는 상처와 고통, 고립과 고독, 동시에 평범한 일상과 따뜻함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100년의 삶을 조용히 지켜본 소록도의 나무와 돌과 바다, 어디서도 보기 힘든 아름다운 빨간 벽돌 건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개인적으로 축복이었다. 소록 작은미술관의 전시는 그렇게 소록도에 대해 새로 알게 된 것들을 예술작품으로 풀어낸 것이다. (과거)오랜 세월 동안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여행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먼 미지의 땅, 북극과 남극을 불러들이고 소록도를 묵묵히 지켜온 자연을 하나의 구체적 존재로 다시 바라보기 위해 자연을 주제로 혹은 소재로 한 작품들을 전시했다. 소록 작은미술관으로 리노베이션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을 주민 몇몇은 하루에도 몇 번씩 쓱 와서 둘러보시곤 했다. 그 애정 어린 눈이 이제 갓 만들어진 이 미술관을 더 풍성하게 채우리라 생각한다. 언젠가는 소록도가 일본의 나오시마 섬처럼 예술과 자연과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로 풍요로운 섬이 되길 바란다. 소록 작은미술관이 그 첫 시작을 만들었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작은 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영화5길 15 3층

02. 332. 8823





개관일 2015년 11월 2일

규 모 3층 136.62㎡

Art into the community

작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미술관

안산시 사2동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이하 작은미술관)은 마을의 다양한 소재를 가져와 작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미술관이 되고자 한다. 2015년 11월 2일 개관하면서 '사2동의 주민과 장소 이야기'란 주제로 작품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지역공간 찾기

지역 사랑방에 예술공간 더하기

작은미술관은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분소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동아리 모임 장소로도 개방하여 지역의 사랑방이자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곳을 작은미술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거용 다세대 건물이었던 공간을 전시를 위한 기본적인 공사가 필수적이었다. 공사의 목적은 기존에 진행되던 프로그램들의 운영뿐 아니라 환기, 채광 등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가벽을 세우고 미닫이 형식의 무빙월 설치와 조명공사를 통해 전시에 적합한 가변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었다.



공간변신

더 큰 미술관이 되기 위한 발판

미술관은 3층을 주 전시공간으로 하여 1층의 전시큐브와 계단 전시공간까지 건물 전체를 미술공간으로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이곳을 거점으로 마을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그의 일환으로 지역커뮤니티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조성될 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하여 미술관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

주거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홍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1층 유휴공간에 전시큐브를 설치하였다. 이곳을 작품 설치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3층 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작은미술관의 시작, Story 1

공간, 사람 그리고 자연

작은미술관은 일상경험을 가진 다양한 마을주체들의 참여과정이 곧 작품이라는 생각으로 마을의 인물과 장소, 이야기를 다양한 장르의 작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주제를 재구성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카이브 전시를 기획하였다.

전시 오픈 전 사전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전시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주민들이 작가와 함께 전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전시공간 구성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관람객 이상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향유자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다. 기획전시 2의 경우 11점의 작가 작품 중 7점을 작품의 주인공인 주민들이 구입, 소장하여 마을미술관에서 작품 유통이 이루어졌으며, 수익금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미술교육을 위해 사용되었다.



소곤소곤 작은 이야기

기 간 2015년 10월 29일 ~ 11월 12일

참여작가 프로젝트그룹 '옆[엽]' (이유경 이은구)

기획전시 현실 속의 공간 위에 이차원과 삼차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가상공간을 만들어 얹으면서 관객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여 작가와 관객의 즐거운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이유경 이은구 작가는 마을 현장 리서치와 사전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와 드로잉을 바탕으로 평범하지만 따뜻한 마을의 이야기를 전시공간에 작품으로 재구성하였다.

작가소개 프로젝트 그룹 옆[엽]은 모든 벽, 유리창, 건물의 실내외 공간에 라인 테이프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공간 재단사이다.



사2동 그림일기

기 간 2015년 12월 08일 ~ 12월 22일

작 가 조장은

기획전시 <사2동 그림일기>전은 안산시 사2동 주민들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작가는 오랜 시간 마을에서 터를 잡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다양한 주민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삶을 작품으로 담아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고자 하였다.
기획전시 2에서는 작가와 함께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캔버스에 표현한 7명의 주민작가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었다.

작가소개 조장은 작가는 그림과 짧은 글로 오늘을 기록하는 '그림일기'의 형식을 빌려 본인의 이야기를 화폭에 담고 있다. 개인의 일상과 삶을 그림으로 시각화함으로써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꽃피는 봄이 오면

기　간　2015년 12월 22일 ~ 12월 31일

작　가　임광혁

전시소개　임광혁 작가는 금속을 재료로 자연의 이미지인 나무와 꽃을 표현한다. 작가는 안산시 사2동이 과거의 모습과 새로운 변화가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마을의 자연적 요소인 벚꽃을 이용하여 봄을 기다리는 풍경을 연출하였다. 주민들은 작가가 설치한 조형물에 희망의 꽃을 만들어 작품을 완성하고 새해의 소망을 담은 메시지를 담아 서로에게 전달하면서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토리가 있는 미술관









미술관으로 온 우리 마을

기　간　10월 19일 | 10월 26일

참 여 자　22명

내　용　내가 좋아하는 우리 마을 장소 찾기, 작가와 함께 공간에 라인테이프로 작품 완성하기





가족이야기 캔버스에 아크릴 작업

기 간 10월 19일 | 10월 26일

참 여 자 7명

내 용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초상 그리기






소망나무

기 간 12월 17일 | 12월 22일

참 여 자 25명

내 용 봄을 준비하는 희망의 꽃과 소망의 나무 만들기

기획자의 변

티팟(주) 정동헌

장소 읽기 '고립된 지역 속 사이좋은 벚꽃마을_안산시 상록구 사2동'

안산시 상록구 사2동은 공업단지가 먼저 만들어진 이후 택지개발에 의해 주거지가 만들어진 준공업단지로 다세대주택, 소형아파트가 공장지대와 혼재되어 있다. 또 해안도로(수인선 광역도로)로 안산시 중심지와 단절되어 지역 내에서도 교육, 문화, 공공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장소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은 오래 살 곳으로 이해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고향으로 가꾸어가자는 취지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주민센터 분소 2층에 위치한 '꿈을 키우는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주체들이 마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공간이다. 티팟은 작은미술관을 같은 건물 3층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작은도서관과 연계 및 확장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초기 기획 방향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 시각예술 체험을 확대해 나가자는 목표를 세우고, 작은미술관에서 시작하여 마을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이 되는 다소 거창한 방향 설정을 했다. 그리고 마을주민, 이야기, 장소 등을 작품 주제로 활용하고 작가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마을 아카이브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실행 과정의 문제들 '내부자와 외부자의 차이'

초기 기획의 방향을 토대로 사업공모에 참여했으나 대상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예산이 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주민센터 분소 3층의 주 전시공간 이외에도 건물 내·외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선정되었다. 추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이후에는 비용에 비례한 전시 규모보다 예술의 향유과정에서 얻는 경험의 질을 우선시하는 미술관으로 기획하고자 노력하였다.
작은미술관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주체들이 동참하기도 했다. 그런데 실행 과정에서 마을만들기 사업과의 간섭요소, 공간활용 일정 중복, 지역작가 참여 등 새로운 요구와 조건과 관련해 많은 협의 과정이 필요했다. 지역 밀착형 작은미술관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외부 전문기획자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작은미술관의 역할 '참여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작은미술관의 모든 전시는 사전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작가에게 마을 이야기를 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가들이 마을의 장소 리서치를 진행하여 세부적인 작품들을 구성하고 주민들도 직접 작품 제작에 참여하여 전시콘텐츠를 채워나갔다.
전시가 거듭될수록 마을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문화 소외지역이었던 지역에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주민간 상호신뢰가 쌓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마을 아카이브 미술관을 표방한 작은미술관에 작가들의 작품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성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뜻밖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끝이 아닌 또 다른 실험'

세 번의 전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첫 번째는 작가가 제작한 작품에 대한 주민들의 구입 요청이었으며, 두 번째는 본 전시를 관람한 외부 갤러리 큐레이터의 타 전시에 대한 작가 참여 요청이었다. 지역의 작은미술관에서 작품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미술관이 신진 작가와 외부 갤러리와의 연결 통로가 되었다는 점은 뜻밖의 성과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성과는 작은미술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발견이었다. 모든 전시가 종료된 이후 작은미술관 운영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장소, 사람, 네트워크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한 것은 가장 큰 성과이다. 눈에 드러나는 큰 성과 보다는 작은 성과들의 더함을 통해 기대와 희망을 발견한 기회였다.
앞으로 정책과 기획주체가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시범운영으로 끝이 아닌 또 다른 실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우리 미술관

전시관_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화도진로 192번길, 3-7, 9, 11

교육관_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화도진로 186번길 10(만석동 희망키움터 2층)

www.ifac.or.kr(인천문화재단)

www.facebook.com/WooriMuseum

www.twitter.com/WooriMuseum

IFAC 인천문화재단

우리미술관



개관일 2015년 11월 28일

규 모 전시관_ 1층 67.69㎡

교육관_ 희망키움터 2층 129.67㎡

Art into the community

우리 동네, 우리미술관

우리미술관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에서 만석동의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공 문화시설이다.

기획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과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미술관은 공동체적 삶을 토대로 인천의 지역성과 예술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화 사랑방으로서의 작은미술관을 지향한다.



지역공간 찾기

철강 공장이 예술 문화를 만났을 때

인천광역시는 안타깝게도 전국 7대 특별시, 광역시 중 시립미술관이 없는 유일한 곳이다. 인천광역시내에서 특히 동구는 박물관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도시 슬럼화의 빠른 진행으로 공폐가율이 인천시 10개 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역의 문화공간 재구성이 절실하였으며 원도심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기존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문화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동구 만석동은 항구와 고속도로가 인접되어 있는 지역특성에 따라 철강과 관련된 대규모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며, 우리미술관이 위치해 있는 괭이부리마을은 김중미 작가의 『괭이부리말 아이들』이라는 소설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낙후된 개발로 인하여 도심 빈민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했다.

동구에 위치한 만석부두, 화수부두, 북성포구는 개항 이후 근대를 거쳐 해방 이후 산업화의 기억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지역성과 역사성을 갖춘 문화자원의 발굴을 통하여 공간의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우리미술관

우리미술관 조성 과정

2015. 10 ~ 11 교육관 조성 및 전시관 인테리어 공사 각각 진행
2015. 10. 교육관 '시간의 기억'전 진행 및 교육 프로그램 선행 운영
2015. 11. 27 우리미술관 개관 '집과 집사이-철,물,흙'전 개최

공간변신

철강 + 미술 = 우리미술관

우리미술관은 공동체적 삶을 토대로 지역성과 예술성을 가진 작은미술관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참여형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마을 주민이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문화 사랑방이 되고자 했다.
지역주민 대부분이 과거 철강관련 근로자라는 공통점에 착안하여 '미술'이라는 생소함을 '철강'이라는 익숙함과 융합하여 주민들과 괴리감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여 보다 정서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 친화형 미술관'을 조성하고자 했다.

그래서 주거 밀집지역 한 가운데 우리미술관을 운영함으로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예술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잔치나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예술가의 소통 등 생활 속에 예술이 스며드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미술관 개관 사전 프로그램으로 <시간의 기억>전 및 도자, 베이킹, 목공 교육을 통하여 미술관 홍보와 동시에 주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선행 사업을 추진하였다. 선행 사업에 이어 2015년 11월 27일 개관을 시작으로 <집과 집사이-철, 물, 흙>의 개관전을, 교육관에서는 <기억의 동네>전을 각각 개최하였다.











전시관

지역에 대한 연구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전시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교육관

예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민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교육관 내에 운영하고 있다.



작은미술관의 시작, Story 1

개관전 첫번째 〈집과 집 사이 – 철, 물, 흙〉을 열다

강 혁, 구본아, 김순임, 도지성, 이상하 등 다섯 명의 작가가 참여하였다. 작가들은 동네를 직접 걷고 만지고 냄새 맡고 수집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만석동의 역사와 동네를 경험했다. 각자의 예술적 시점에서 지역을 읽어내고자 한 노력을 통해 빚어진 이들의 작품과 그 작업과정은 만석동을 상징하는 것들 중에서 철강단지(철), 부둣가(물), 그리고 이 땅에서 땀 흘린 노동자(흙)에 집중됐다. 전시기간은 2015년 11월 28일부터 2016년 02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닻사장(화수부두 한연수) 디지털사진, 2015

작 가 강 혁

작품소개 강 혁 작가는 20여 년간 닻을 만들고 수리해 온 이른바 닻장인과 만나며 동네를 만났다. 장인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작가 스스로 장인의 삶, 더 나아가서는 그의 생애만큼 동안의 동네의 삶을 경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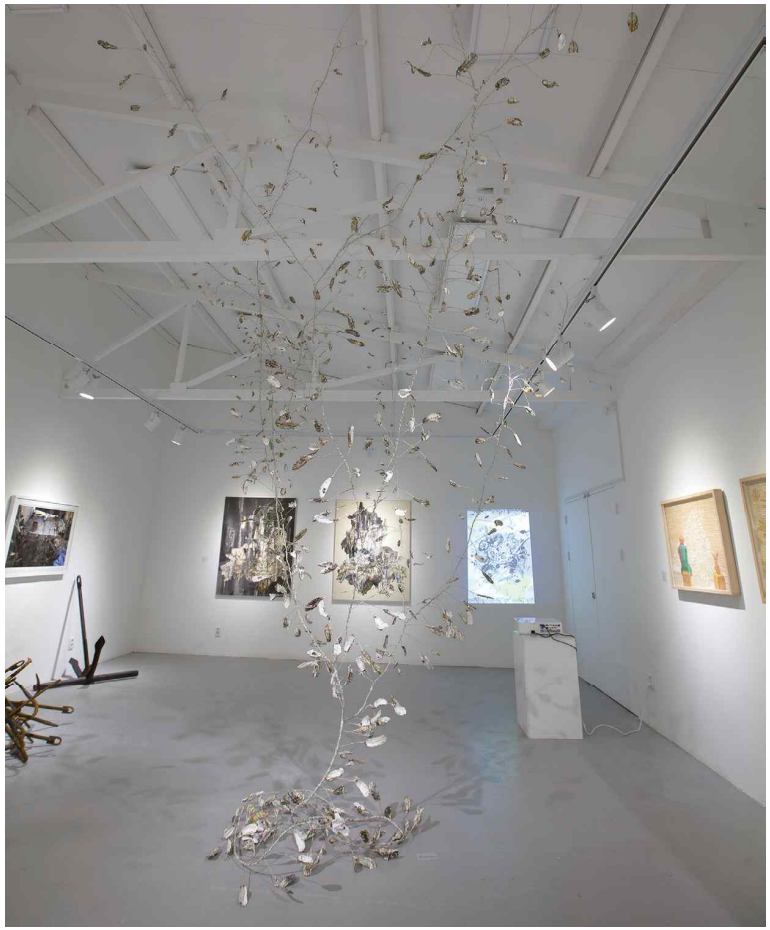


The Iron Life

한지에 먹드로잉, 플래쉬 영상 스틸 컷, 2015

작 가 구본아

작품소개 철강단지의 발전과 함께 변화를 겪어 온 지역의 일생을 수묵이 지니는 물성을 통해 표현했다. 수묵 작품을 기반으로 한 영상을 통해 평면 안에 단순히 읽힐 수 있는 철의 이미지 확장을 시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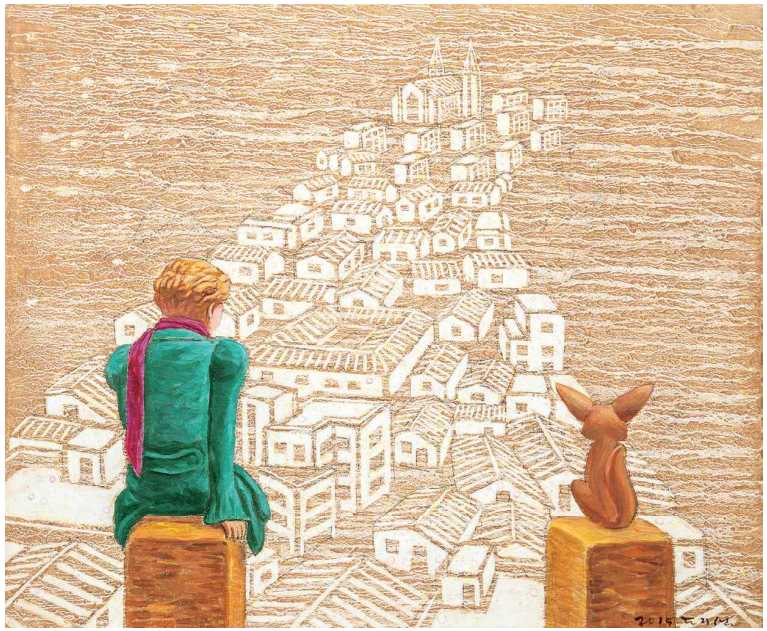


굴땅 The Space68

굴껍질, 와이어, 종이테이프, 블록, 가변설치, 2015

작 가 김순임

작품소개 한때 괭이부리마을 일대 집의 기초를 다지는 용도로도 쓰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들의 생계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 굴 껍데기를 수집하여 동네와 그들의 삶을 예술적 시점에서 표현하고자 했다.



흙의 기억 캔버스위에 아크릴과 토분, 2015

작 가 도지성

작품소개 흙의 기억을 통해 동네의 옛 모습을 떠올린다. 물에 풀어낸 흙을 캔버스 위에서 더하고 지워가며 동네의 모습을 만들어갔다.



어디나 꽃은 핀다 혼합재료, 2015

작 가 이상하

작품소개 이제는 골목도 흙도 예전처럼 찾아볼 수 없는 동네에서 흙이 있는 곳을 찾아가며 소통을 시작했다. 팍팍한 삶 안에서 집 앞 조그마한 텃밭에 꽃과 채소를 심고 물을 주며 가꿔가는 마음을 조각으로 작업 하여 표현하며 그 안에서 동네의 삶과 희망을 바라봤다.

작은미술관의 시작, Story 2

개관전 두번째
〈기억의 동네〉 주민 참여 전시

<기억의 동네>전은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우리미술관 개관전시이다. 미술관 조성과정에서 작가 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동네 어르신과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선보였다.

아이들의 흙 그림과 어르신들의 도자 및 드로잉 작품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와 이웃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시기간은 2015년 11월 28일부터 시작되어 2016년 3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우리들의 미술관은 가변설치, 흙, 유약 등, 2015

참여어르신 김정희 신영자 이정숙 이음분 이주희 한영란

지　　도 이꽃담 곽지영 이나리



우리들의 동네는 2015

참여어린이 지은서 채민서 김가람 안태연 박진서 김서연 소유진 김유빈1 이현서 박다빈 김하을 김성은 김한결 김유빈2 김아라 고하영 김도경 최서윤 한정은 이유상 방선웅 김서율 김채율 박선혜 김소율 허벽현 이시윤 서예림

지　　도 도지성 유혜경



내가 살던 동네는 2015

참여어르신 이음분 이주희

지　　도 이꽃담 곽지영 이나리

작은미술관의 시작, Story 3

우리미술관 간판은 우리 손으로

우리미술관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도자, 베이킹, 목공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8차시에 걸쳐 진행된 도자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동네 기억하기> 드로잉을 시작으로 흙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나아가 점토 조형에 익숙해져 가면서 우리미술관 간판 만들기를 진행하고 사용함으로써 우리미술관에 대한 애정과 주인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4차시에 걸쳐 진행된 베이킹 프로그램은 소소한 먹거리를 만들며 주민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목공 소품을 만들어 직접 만들어 창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 프로그램 Ⅰ~Ⅲ

도 자	기간	2015년 10월 20일 ~ 12월 15일(8차시)	강사	이꽃담 곽지영
베 이 킹	기간	2015년 10월 23일 ~ 11월 13일(4차시)	강사	이서현 이미옥
목 공	기간	2016년 01월 22일 ~ 02년 12일(4차시)	강사	이상돈

기획자의 변

인천문화재단 김승근

만석동이라는 지명보다 김중미님의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로 익숙한 그 곳에 위치한 우리미술관

우리미술관은 '공동체적 삶을 토대로 지역성과 예술성을 가진 작은미술관을 조성한다'라는 목표로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 사랑방으로 운영되는 인천 동구의 작은미술관이다. 개관하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우리미술관을 응원해 주신 지역주민들,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협조하여 참여해 주신 작가분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구청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속에서 우리미술관이 운영되어 왔다.
아직은 여러모로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미술관은 이제 첫 걸음마를 떼었을 뿐이며, 지역주민들에게 멀게 만 느껴지는 미술관이라는 장소를 좀 더 친숙한 우리들의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숙제이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보듬는 활동과 사업을 통해 마을을 변화 발전 시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 괭이부리마을의 '문화 사랑방'이 우리가 지향하는 미술관의 모습인 것이다.

관람 안내

관람시간
10:00 ~ 18:00
(입장은 관람시간 종료 20분 전까지 가능)

휴관일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 다음날
1월 1일 / 설날 및 추석 연휴



두계 장옥 미술관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50-4
두계시장 장옥

041. 630. 2913

www.cacf.or.kr

Art into the community

미술장날,
장옥미술관

두계 장옥미술관(이하 장옥미술관)은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옛 두계장터를 리모델링해 개관한 미술관이다. '5일장에 나서듯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미술관에 가자'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쉬어 갈 수 있는 열려있는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고자 했다.
특히 미술관의 고유 기능인 보고 듣는 수동적인 프로그램 운영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예술로 소통하는 주민친화형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충남문화재단

JANG OK 장옥미술관 MUSEUM

지역공간 찾기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로
탈바꿈하기까지

충남 지역의 미술관은 8개소(공립 1, 사립 7)에 불과하며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도 총 66회(전국대비 0.48%) 밖에 되지 않는 등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pp.14~19). 미술관 수를 포함하여 전문 인력과 전시 건수 등 전반적인 인프라가 질적 · 양적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두계시장 장옥은 계룡시가 추진한 '2005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이후 한 번도 장이 서지 않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한 유휴 공공시설이었다. 이를 주목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시각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지역 미술인들의 작품 발표의 장으로 제공함으로 계룡지역의 문화예술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했다.





개관일 2015년 11월 6일
규 모 1층 177.48㎡
2층 52.47㎡

공간변신

5일장에 나서듯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미술관에 가자

2015년 9월 현장 사전답사를 시작으로 두계시장 장옥 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하였다. 계룡시에 처음 세워진 미술관이지만, 주민 곁에서 늘 함께하는 시장처럼 즐거움을 주는 미술관으로 가고자 '5일장에 나서듯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미술관에 가자'라는 슬로건도 만들었다.





작은미술관의 시작, Story 1

豆溪,
마을을 그리다

장옥미술관은 콩(豆)이나 군사도시(계룡대) 등 계룡 지역 특색과 상징성을 소재로 한 전시나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완두콩이야기

기 간 2015년 11월 06일 ~ 11월 17일

참여작가 기유경 박형진 조우연

전시소개 두계시장이 위치한 두계리는 콩 두(豆)자를 쓸 정도로 예전부터 콩이 많이 재배되던 곳으로 지역의 상징적인 특산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전시하였다.

비빔밥 그림으로 맛보기

기 간 2015년 11월 20일 ~ 11월 29일

작 가 김진욱

전시소개 극사실주의 기법의 비빔밥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조화', '어울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다시 예술인으로 돌아가다

기　　간 2015년 12월 02일 ~ 12월 13일

참여작가 권현칠 김선미 박경주 오재옥 윤상욱

전시소개 계룡시의 중견 및 원로 작가들이 계룡시를 소재로 한 구상 작품을 전시하였다.



떴다-떳다 비행기

기　　간 2015년 12월 17일 ~ 12월 27일

작　　가 노영훈

전시소개 계룡의 지리적 특성인 군사도시 상징성을 드론이라는 무인항공기 모형과 다양한 형태의 모형 비행기로 형상화한 작품을 설치하였다.



미술관으로 간 꽃

기 간 2016년 01월 12일 ~ 01월 21일

참여작가 김제주 노현정 박경희 석기문 송찬희 천고은

전시소개 지역작가들의 꽃 누루미(압화)를 주재료 한 평면 및 입체작품, 공예품을 전시하였다.



전통을 노래하다

기 간 2016년 01월 23일 ~ 02월 01일

참여작가 김미정 박명숙 박은석 안순옥 이현미

전시소개 지역작가 5인의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입체 및 대형 퀼트 작품을 전시하였다.



묵향으로 물들다

기　　간　2016년 02월 03일 ~ 02월 15일

참여작가　청강 김재희 오헌 김태호 시연 유순자 운화 정영순 화연 허정혜

전시소개　지역작가 5인의 지혜가 담겨있는 서예 및 문인화 작품을 전하였다.



프로젝트 계룡 100인의 삶을 그리다

기　　간　2016년 02월 17일 ~ 02월 28일

작　　가　박석신

전시소개　박석신 작가가 미술관 지역 노인회관, 아동센터, 부녀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듣고 이를 시화 작품으로 제작하는 아트 프로젝트이다. 지역주민들 100인이 주인공이 되는 옴니버스형 다큐멘터리로 기획되었다.

작은미술관의 시작, Story 2

마음을 읽는 미술관



종이 인형 음악극

일　시　2015년 11월 14일 ~ 12월 27일 / 매주 토, 일 오후 1시

대　상　8~12세 어린이 대상

내　용　파피어테아터(종이 인형극)를 재구성하여 다양한 예술 활동과 창의적 음악이 융복합된 장르의 음악극을 통해 예술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 : 그림그리기

일　시　2015년 11월 14일 ~ 12월 26일 / 매주 토 오후 3시

대　상　55세 이상 지역 어르신 대상

내　용　두계시장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행복했던 순간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림그리기 및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작은미술관의 시작, Story 3

미술관 오기 좋은날, 장날음악회

미술관 개관 후 기획 전시와 연계 프로그램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술관 앞마당에서는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진 예술가들이 국악, 클래식 주말 음악회를 열어서 지역 주민의 호응과 관심을 이끌어냈다.

기획자의 변

충남문화재단 변상섭

두계 장옥미술관의 '나비효과'

두계 장옥미술관(이하 장옥미술관) 조성사업이 시작됐을 때, 마을주민들은 반대하거나 관에서 하는 일이니 지켜보자는 식이었다. 설상가상 공사 중에는 소음과 먼지 공해를 이유로 마을 이장을 통해 여러 차례 민원도 제기했고, 주민들 중 일부는 시골구석에 미술관이 웬 말이냐며 시장기능으로의 부활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장옥미술관이 개관하면서 문화충격의 스트레스는 친숙함으로 변해갔다. 신문과 방송에 장옥미술관 개관 기사가 보도되고 콩과 팥, 쌀과 보리 등 두계리를 상징하는 그림을 본 후 그림에 대한 거부감이 누그러들기 시작한 것이다. 또 군사도시인 계룡시를 형상화한 조각과 그림, 그리고 이웃에 살고 있는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주말에는 작은 음악회와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분위기도 형성되어 갔다.

문화예술을 즐기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남녀노소 가릴게 아니다. 문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코스다. 작은미술관 사업은 문화예술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로 행복한 삶을 암시하는 나비의 날갯짓, 즉 '나비효과'를 잉태하고 있음이다.

남해 바래길 작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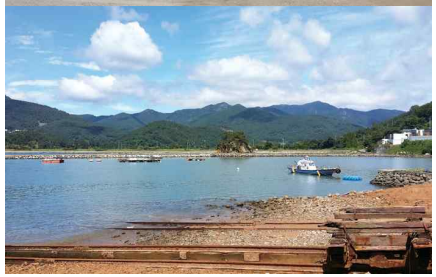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1739번길 46-1

055. 862. 5557









개관일 2015년 10월 19일
규 모 1층 73.34㎡

Art into the community

바래길 주민과 탐방객을 이어주는 미술관

사단법인 대안공간 마루와 경상남도 남해군이 공동으로 지난 '2015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에 선정됐다. 적절한 전시공간이 없어 작품 관람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예술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일 것이다.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이하 작은미술관)은 주민 접근성이 높은 남해 바래길 1코스 다랭이지겟길의 출발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술 문화를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년 2만 명에 육박하는 탐방객들에게도 새로운 볼거리가 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공간 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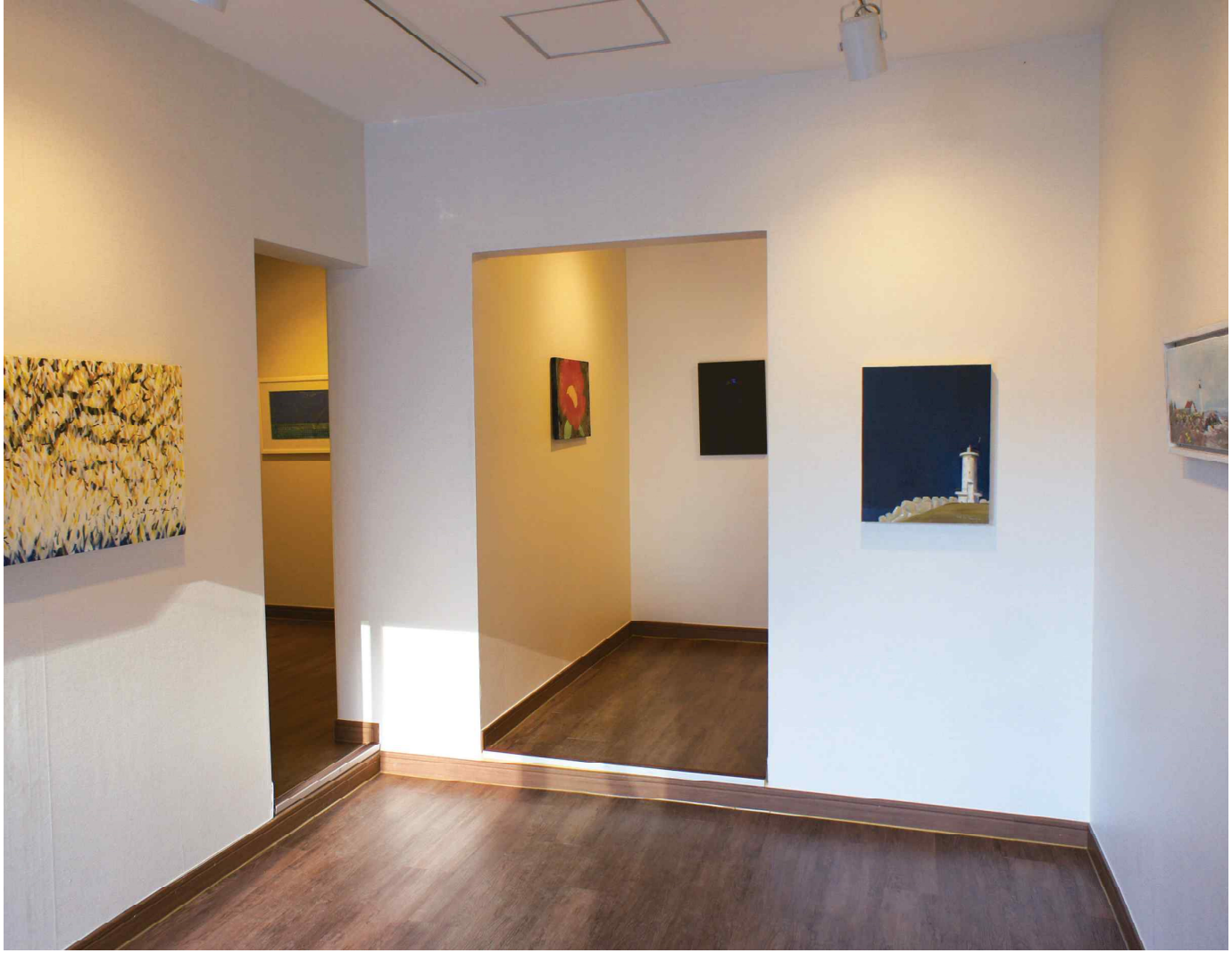
바래길 작은미술관 SMALL MUSEUM

지역공간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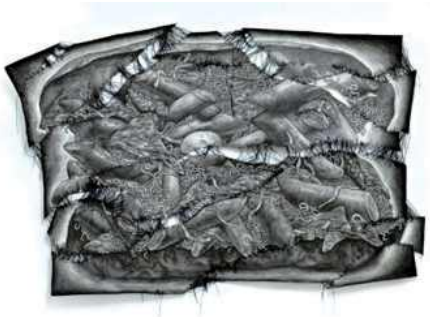
몸을 치료하는 보건소가 마음을 치유하는 미술관이 되다

남해군의 복지회관이나 보건진료소 등 곳곳에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유휴공간들에 주목했다. 작은미술관의 공간으로 상처를 치료했던 구 평산보건진료소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기존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과 공간에 적합한 콘텐츠(전시와 부대 프로그램) 확보와 실행을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이제는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문화 향유공간이 되면서 평산리 주민들과 탐방객들을 엮어줄 새로운 소통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간변신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작은미술관

지난 2011년 폐쇄된 후 줄곧 방치돼 있던 보건소는 전시장 리모델링 전에 먼저 건물 안전진단을 받았다.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벽체를 제거하고 실내에 있었던 화장실, 보일러실, 창고 등의 공간을 정리하고 창호는 폐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련의 과정은 건축전문가, 기획자, 마을이장 그리고 남해군 문화예술팀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실내 전시를 위한 벽지, 전시로프, 내벽치장, 천장개선, 조명설치 등과 공간 개선을 위한 출입문 교체, 도색 등은 공모 사업비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외부 환경개선과 두 곳의 야외화장실, 야외주차장, 관람객의 야외휴식공간, 옥상 방수, 실내 냉난방 시스템, 컴퓨터와 CCTV 설치 등 나머지 제반 경비는 남해군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되었다. 특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설개선 작업은 대안공간 마루가 감수를 맡아 진행하였다.

이번 작은미술관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해군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자 한다. 그래서 남해군 전역의 시각예술 투어코스 조성하여 남해군을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환경으로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작은미술관의 시작, Story 1

공간을 위한 전시기획

작은미술관의 전시기획은 전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공간을 위한 전시기획이다. 따라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작가들이 남해를 투어하면서 남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보물섬전

기 간 2015년 09월 19일 ~ 10월 03일

참여작가 전병수 이경태 김희곤 전인숙 신종식

기획전시 경남수채화회장을 역임한 5명의 작가들이 남해를 투어하면서 보물섬 남해를 기록하고 해석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남해가 창작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해석되는지를 가늠하는 전시이다.





land·scape(바다바람전)

기　간 2015년 10월 09일 ~ 10월 24일

참여작가 강천석 백종기 하춘근 김현주 강주연 정종효 이규석 민선미

기획전시 바다바람전은 여덟 명의 멀티플 작가들이 남해에서 체류하고 창작하는 프로젝트로 작업과 직업을 병행하는 작가들의 작업을 초대해서 바다바람을 주제로 창작하고 결과물을 전시하였다.





여섯개의 신호전

기　간 2015년 11월 14일 ~ 11월 28일

참여작가 박소현 이노우에 리에 이진우 황희정 박진영 박용화

기획전시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경남창작센터 제7기 입주 작가를 초대하여 레지던시 작가들의 창작을 가늠하는 전시이며, 젊은 작가의 창작을 지원하였다.





치유와 소통전

기　　간　2015년 12월 05일 ~ 12월 19일

참여작가　이미영 박미 김혜은 서금희 심은영

기획전시　보건진료소가 과거에 주민들에게 상처를 어루만져주듯이 이제는 문화예술 치유공간으로 재생된 작은미술관에서 살아나는 기억을 더듬어가는 치유와 소통의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경남의 40세 미만의 작가 5명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기억과 자료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창작하고 발표하였다.

작은미술관의 시작, Story 2

나도 화가다!

매회 전시와 연계한 나도 화가다! 체험 프로그램은 이장, 마을주민들과의 협의로 농번기가 끝나는 지점에 점심시간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나도 화가다!

일　　시　농번기가 끝난 11월부터 협의하여 4~6회 진행

참 여 자　평산 1리, 2리 마을주민(에듀케이트 김미정 강천석)

내　　용　체험 프로그램으로 평산 1리와 평산 2리 경로당 지원사업인 미술체험 프로그램 나도 화가다! 전시 참여작가와 에듀케이트가 협업해서 진행하였다.

기획자의 변

대안공간 마루 **황무현**

대한민국 경상남도 남해군은

고려 선종2년(서기 1085년) 5월경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마을이름을 '산해'라 불러 오다가 임진왜란 때 전라좌수영 관하에 조만호라는 수군 지휘관이 이곳에 주둔하여 이때부터 마을을 평산포(平山浦)라 불러 오다가 1949년에 평산 1,2리로 분동되었다. 이곳은 일몰광경이 일품이고, 봄에는 마을고개에 전국의 화가들이 모여들어 바다의 풍경을 스케치하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이 아름다운 남면의 남해 바래길 1코스

다랭이지겟길의 출발점 남변로 1739번길 46-1에 위치한 평산보건진료소가 2011년 3월 1일자로 진료소 운영이 중지되어 줄곧 방치되었다. 그러다가 유휴공간을 생활 속 미술공간으로 만드는 작은미술관 프로젝트에 당선되면서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이하 작은미술관)이 새로운 소통공간으로 거듭났다.
그동안 적절한 전시공간이 없어 작품 관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남해주민들에게 작은미술관은 주민들에게 상처를 어루만져주었듯이 이제는 문화예술 치유공간이 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사단법인 대안공간 마루가 맡았는데,

마루는 1995년 3월 15일 개관한 비영리단체 미술가공동운영화랑(Cooperative Gallery)으로 전시와 창작지원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고, 대안적 미술문화 형성을 위한 경남미술인들의 근거지 역할과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대안공간 마루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주최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원사업인 한·일 국제교류전을, 경남메세나협의회의 지원사업인 전시를 매년 20여 차례 기획하였다. 그리고 본 사업의 총괄 기획자인 본인은 '2012 창원아시아미술제' 전시감독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레지던스 프로그램 큐레이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 국제교류전의 감독을 각각 맡았고, 현재는 마산대학교 아동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바닷가에 접해있어

창작 및 예술적 감성과 공감의 입지가 잘 어우러지는 작은미술관은 이제 다양한 콘텐츠(전시와 부대 프로그램)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역과 공간에 적합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며, 공모사업의 프로그램 이후에도 지역 미술 작가 예술단체 공무원, 지역주민이 직접 나서서 우리 동네 고품격 사랑방 갤러리, 지속가능한 문화거점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발 행 인 박명진

발 행 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352)
061. 900. 2100(2200)
www.arko.or.kr

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디자인·제작 (주)인디엔피 indnp.com

발 행 일 2016년 4월

* 이 책의 내용과 이미지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이 책은 '2015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사업비로 제작되었습니다.